

여관에 걸린 네 남자의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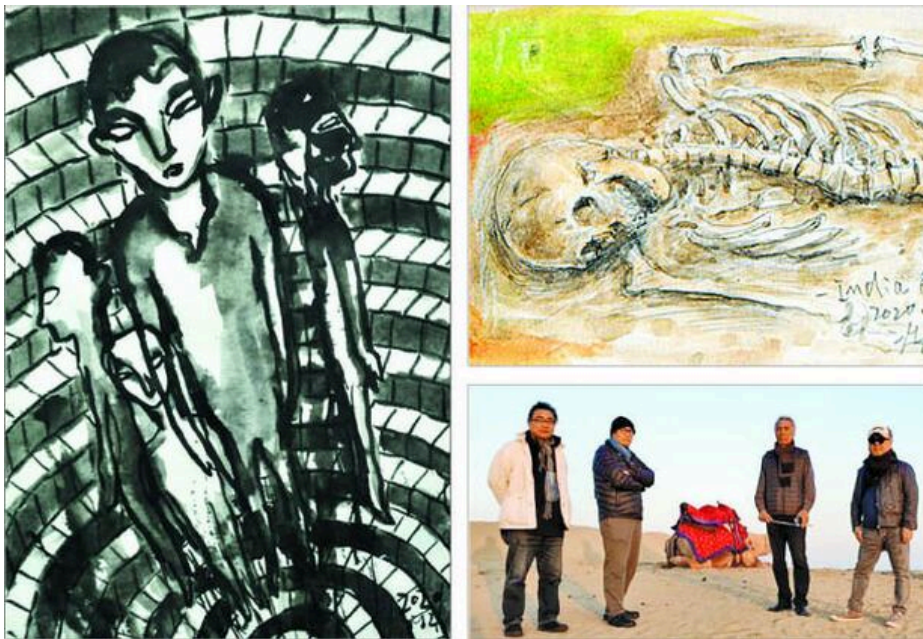
강경구·김성호·김을·안창홍, 서울 보안여관서 '라자스탄...'展

정상혁 기자

입력 2020.03.25. 03:00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그래서 먼 길 떠나기 전에 여관부터 잡았다.

지난 1월, 네 화가가 인도행(行)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최악이자 최고의 여행지"를 향해 의도적 길 잃기를 감행한 강경구(68)·김성호(66)·김을(66)·안창홍(67)씨는 떠나기 전, 이곳부터 둘러봤다. 서울 통의동 보안여관이다. 강씨는 "단짝 친구들과 현지에서 느낀 바를 작업해 전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낯고 험어 인도의 느낌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42년 지어진 보안여관 실내 일부는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장으로 사용된다.



왼쪽 큰 사진은 강경구 수묵화 '라자스탄의 우물', 오른쪽 위는 김성호 수채화 '인디아 소견2' 일부. 타르사막에 선 화가 강경구·김을·김성호·안창홍.

보름 동안 인도 자이푸르~조드푸르~자이살메르를 지나 타르 사막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인간 본연의 모습이 적나라했다. 거리의 악취며 똥물은 일상이었다. 강씨는 "1등석 기차칸을 예매했는데 그냥 쫓아내더라"며 "겨우 3등칸 자리를 구해 쪼그려 앉아 잠도 못 자고 18시간을 가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고 했다. 숙소에 도착하면, 저녁만 먹고 각자 방으로 흩어져 그림을 그렸

다. 수묵·수채화·입체 등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토해냈다. 안씨가 느낀 인도는 "눈을 파고드는 송곳 끝"이자 "혼돈의 블랙홀"이었다. 그래서 "내면을 온전히 들여다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다. 그가 그린 자화상이 검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 제목 '라자스탄의 우물'은 강씨가 제안했다. 동명의 수묵 드로잉도 남겼다. "사막 지대라 우물이 발달해 있더라. 그 시커먼 심연 안에서 인간의 삶이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흘러들고 또 흘러나온다. 어둠 아래 물이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떠올리게 되는 희망의 형상이 거기 있다." 혹독한 길이었으니, 이들은 당분간 이곳에서 쉬어 갈 것이다. 4월 4일까지.



정상혁 기자